

# “아빠는 가족불심 선봉장”

## 진관사·은석국교 ‘불자아버지회’ 결성... ‘새싹’ 확산

신행활동에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적극지원 배려하는 불자아버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은석국교인교회 연화어머니회를 모태로 출발한 연화아버지 모임(가칭), 어머니회의 활동을 도와 동참해온 아버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화어머니가 사찰순례법회의 일일 지도교사로 참가하는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자원봉사 모임인 수원연화회의 거사회도 어머니들의 모임에 자극받아 결성된 불자아버

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용주사 가족수련회를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한마음 불자가정을 이뤘다.

자녀들의 불교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진관사 아버지법회가 얼마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삼천사는 부부가족법회의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불교교실을 오는 7월경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반야정사 등 사찰의 거사회들도 어린이·학생법회에 매일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불자아버지들의 학생법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인 남교회씨(아트라인 대표)도 불자아버지회의 한사람. 두 딸의 아버지인 남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좋은 아버지 모임을 통해 올바른 아버지 역할을 위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아동문학회의 경우도 회원의 70%가 불자아버지회이다. 불교아동문학회 관영석간사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읽을 도서를 심의하고 찬불가 가사를 짓고 함께 법회도 참석하는 등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법불교적으로 아버지들의 동참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자아버지들의 활동이 불자가정의 새로운 신행풍토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

### 조계사, 연건평 8백20여평...31일 기원법회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통일기원 만불보전'이 건립된다.

일제의 압박속에서 해방을 맞은지 50년인 올해 건립되는 만불보전은 통일유언을 향한 지극한 염원을 담아 연건평 8백20여평으로 지하2층 지상2층 목조3층의 전통양식으로 지어진다.

만불보전 지상 1층은 중무소 및 불교용품 전시실이 들어서고 2층은 조계사를 찾는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마음껏 개방된다. 세미나 및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소강당과 비디오 등 최신 영상기기가 들어서며 전통차를 즐기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다원은 들어설 계획. 지상 3-5층은 통일을 기원하는 민본의 부처님이 봉안되는데 전통양식의 목조건물이 될 것이다.

또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쓰여져 조계사를 몸살나게 하던 주차난이 해결 조계사가 교구본사로서의 제 면모를 되찾게 될 예정이다.

총공사비 약 1백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만불보전은 오는 97년 봄 완공 예정이다.

조계사는 통일기원만불보전 건립추진위원회(고문 서석재 총무처장관)를 구성하고 오는 31일 수요일 오후 6시 신라호텔 대니얼스룸에서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사는 평화회관을 열고 그 지리에 지하2층 지상2층 목조3층의 만불보전을 건립한다.

## “생명을 푸르게” 청정국토 가꾸기

### 내달 3·4일 20여 불교단체 어린이 환경연극등 펼쳐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을 주제로 한 청정국토 한마당이 6월 3·4일 이틀동안 조계사와 인근 수송공원에서 개최된다.

청정국토 한마당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행사 일정과 내용을 확정했다. 제5회 환경주간을 맞아 석왕

사와 불교환경교육원등 20여 불교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법회 △어린이 환경연극 △백악장 그림그리기 △중물공 연 △불자환경 만민공회 △정태훈 김광석 초청공연 △물물고 환경저 등이 펼쳐진다.

는 ‘남북합동 조국통일기원법회’를 개최하기로 수정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18 추모법회 봉행

광주사암연, 항쟁 15주년

광주불교사암연협회(회장 영조스님)는 지난 18일 낮 12시 도청앞 광장에서 ‘5·18영령 추모법회와 천도제’를 봉행했다.

5·18 민중항쟁 15주년을 맞이해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는 지선스님의 ‘5·18 정신계승과 기소속구’ 연설에 이어 천도제 등이 거행됐다.

## ‘복지한마당’ 6월 9일 열어

### 조계종, 불교사회복지단체장 모임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념법회 및 불교복지인 초청 ‘불교복지 한마당’을 오는 6월 9일 개최한다.

불교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체계화 정립을 위한 시도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민간기관으로서의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고 21세기 불교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교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의 연대모임도 함께 열어 사회복지사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문점 행사 및 전국규모 육의행사를 불허하기로 결정. 관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 남북합동법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과 평불협은 23일 북경 예비 실무회담을 통해 조별연락에 현상유지를 이해서시키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상호 순수한 종교행사로 남북한 불교계가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

양천체육센터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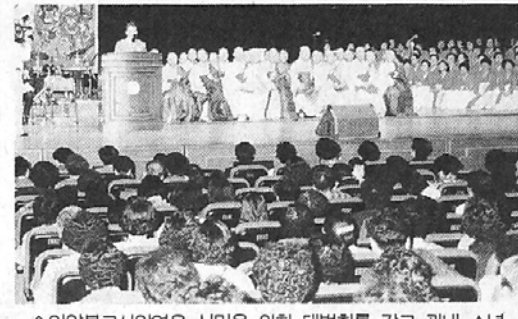
내달 1일...관장에 상륜스님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이 서울 양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된 양천구체육센터(양천구 신정동 322-10)가 오는 6월1일 개관식을 갖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운영을 맡아 초대관장에 상륜스님(승사 주지)이 취임,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대구지사 053)426-2779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한국 중국 일본 불교도들의



안양불교사암연은 시민을 위한 대법회를 갖고 관내 소년 소녀가장 52세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 소년소녀가장등에 성금 전달

### 안양사암연 대법회 개최...2천불자 동참

안양불교사암연협회(회장 상덕)는 지난달 28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안양시민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 소년소녀가장 52세대에 5백2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법회는 스님, 신도를

비롯 관내 기관장등 2천여명이 동참, 안양시민 및 불자들의 신앙심을 양양하는 포교의 장이었다.

이앞서 안양사암연은 수도군단 총의사와 전국불자교정인 연합회를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 올해엔 하안거 결제

### 지난 14일 일제 봉행

올해엔 하안거 결제가 지난 14일(음력 4월 15일)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해인 조계 영축 덕총림등 조계종 4대 총림을 비롯 전국 각 선원과 사찰에서는 일제

식을 갖고 방장 및 조실스님의 결제법문을 들은 후 3개월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결제법어에서 “뜻이 맑은 물이 있으면 달그림자는 저절로 떠오른다”며 장사스님의 계승을 예로 들어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 성보문화재 중단차원 실사

### 이달말 예산·전문인력등 구체계획 세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중단차원의 실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는 각 교구 본말사에 산재해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해 각 사찰의 협조를 얻어 정밀한 실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말쯤 예산 및 전문인력,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문화국장 덕선스님은 “현재 문화사부에 비치돼 있는 각 교구 본말사 성보대장은 빠진 문화재가 많을뿐더러 사진이나 기록미비등 허술하기 짝이 없어 성보관리 및 보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실사를 통해 정밀한 성보대장을 다시 만들어 주지 교계시 정확한 인식 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 대륜불교문화연구원 발족

### 태고사상 기리기등 각종 문화사업 전개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이 창립됐다.

지난 3월22일자로 문체부로 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대륜불교문화원은 중단을 초월해 승가와 포교사, 사회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된 순수 학문과 포교사업 단체다. 연구원은 올해 출범을 기념해 태고 보우스님(승사 주지)이 취임,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이 창립됐다.

지난 3월22일자로 문체부로 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대륜불교문화원은 중단을 초월해 승가와 포교사, 사회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된 순수 학문과 포교사업 단체다. 연구원은 올해 출범을 기념해 태고 보우스님(승사 주지)이 취임,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국제간 불교문화 교류사업등을 펼칠 계획이다.

‘핵과 한국안보’ 강연

평불협, 불교특별 토론회도

평불협(회장 월주스님)은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중단협 강당에서 ‘불교 특별초청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불협은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중단협 강당에서 마치에피 초박사(폴란드 역사학자·학술원 회원)를 초청해 두번째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대표선우 역할분담 체제

선우도량(상임대표 도법스님)은 지난 10일 남원 실상사에서 ‘제1차 신행선우 모임’을 열고 화엄학원 개원 및 운영 등 올해 중점사업을 구체화했다.

선우도량은 7인의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15일 문을 연 화엄학원(운영위원장 운산스님·실상사 주지)에 교수로 영관스님, 법성스님, 현응스님 등을 선임하는 한편 교과목은 화엄학원, 화엄경, 화엄경소, 화엄학개론 등 7개 과목을 확정했다.

## 능인선원 최우수상 수여

불기 2539년 불족위원회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불족행사 관련 시상식을 갖고 능인선원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금년 불족행사결산과 함께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천태종 한마음선원 선학원 주지종국립산업대학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태고종과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가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불족행사에 공이 많은 금문단 청교연 건영 수주사합창단 등이 모범상 장려상 감사패 표창패등을 받았다.

## 조계종 신도등록지침서 발간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실무기화단은 지난 16일 신도등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안내책자 ‘신도등록지침서’를 발간, 홍보에 들어갔다.

“신도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신도는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본말사 및 포교당을 규정사찰로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도 교무료로 년 1만원(18세 이하는 5천원)을 납부해야 신도등록이 된다”고 밝혔다.

## 불철심 27일 특별강연회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회장 이호식)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항녕 박사(YMBA 회장)가 ‘남북통일과 불교인의 역사적 사명’, 태운스님(bm 사장)이 ‘불국토를 건설하자’,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과)가 ‘21세기 불교인의 역할’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 선운사 운성강택 대비봉행

지난 6일 세수 85세를 일기로 열반에 든 운성스님의 대비식이 지난 10일 전북고창 선운사 대비장에서 조계총림 방장 승한스님을 비롯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1924년 박한영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운성스님은 한영 대강백으로부터 강택을 전수받은 후 50여년 동안 지방 강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 불자보시품 대할인보급

구입 문의

三田佛事 (02)732-6095  
732-6096

· 강남서비스센터 080-023-1101(요금 주선지부)

● 국보제32호(교리관대장경 정밀복사) 금동반야심경

● 국보제29호 황금에밀레종(석적대왕신종)

**선착순 20점**

● 석가세존부처님일대기병풍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병풍입니다.

● 종전가: 298,000원

● 행사보급가: 298,000원

■ 8폭

높이: 5자5치(167cm)

폭: 12자(364cm)

**선착순 38점**

● 16나한 수행상 탱화병풍

중국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원작을 공단에 금화로 조성한 영험높은 병풍

● 종전가: 300,000원

● 행사특가: 300,000원

■ 10폭

높이: 5자5치(169.7cm)

폭: 15자(약 454,500cm)

**선착순 48점**

● 비경 천불금강경 경관

부처님 천분을 앙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한 비경

● 종전가: 340,000원

● 행사특가: 340,000원

■ 규격

주석 99%(순금계금) 505×255×8(%)

**선착순 108점**

● 국보제32호(교리관대장경 정밀복사) 금동반야심경

● 종전가: 68,000원

● 행사특가: 68,000원

■ 재질: 순동 24K계금

재질: 가로260×세로99(%)

**선착순 7점**

● 만다라호신 벽시계

불법의 원력을 바로 느끼게 하는 신비의 영성세계 - 만다라

● 종전가: 90,000원

● 행사특가: 90,000원

■ 원전체만다라

● 규격 41(%)

**선착순 108점**

● 24K 순금 황금반야심경백자

● 종전가: 98,000원

● 행사특가: 98,000원

■ 규격

● 경봉대신사 천원

● 크기: 30×104cm

**선착순 108점**

● 24K 순금 황금반야심경백자

● 종전가: 98,000원

● 행사특가: 98,000원

■ 규격

● 경봉대신사 천원

● 크기: 30×104cm

**선착순 118점**

● 국보 제29호 황금에밀레종(석적대왕신종)

● 종전가: 85,000원

● 행사특가: 85,000원

■ 재질: 순청동·순금계금

● 크기: 235×185×270(%)